

조합 「근로자재해공제」 보유공제 도입 시행

2008년 도입하여 시작한 근로자재해공제 『판매공제』사업이 2017년 8월 1일 『보유공제』사업으로 전환됩니다.

판매공제는 동부화재외 2개사와 업무협정을 통해 조합은 상품판매만 하고, 손해보험사는 상품개발, 보상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유공제는 상품개발, 판매, 보상처리 등 모든 공제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조합이 직접 수행합니다.

조합의 보유공제 전환은 조합원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책임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금액을 보상하는 근로자재해공제 상품입니다.

조합에서 보유공제사업으로 전환배경은?

첫째, 조합은 보증, 용자업무에서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보유공제 도입을 통해 사업다각화 모색과 조합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둘째, 공제료를 인하하여 그 혜택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인 공제사업 추진으로 조합의 수익사업 창출을 통한 안정적 재무구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조합이 보유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보증, 용자, 공제 등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금융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과 윈스톱 서비스로 제공받는 등 경제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공제사업이 신사업 성장 동력의 구심점이 되어 앞으로 새롭게 개척할 사업분야에 있어서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계리법인과 우선 “근로자재해공제” 상품 개발을 진행하여 기본요율 인하(9.1%~11.4%), 공제료 할인·할증 개선(일률적 할인→차등 할인할증), 최저공제료 조정(1만원→2만원) 등을 완료하였고,

2017년 2월 8일 보유공제사업 및 근로자재해공제 상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인가를 신청하여 보유공제 도입취지 등을 협의하여 2017년 4월 18일 인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성공적인 보유공제사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정에 있으며, 조합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본격적인 「근로자재해공제」 보유공제 자체적 운영 및 상품 판매는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은 동부화재와의 업무협정 해지로 인해 2017년 8월 1일부로 조합에서 발급이 중단될 예정에 있으므로 현재 영업배상책임공제를 이용 중인 조합원사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사업초기(2017년)는 근로자재해공제에 대하여 보유공제를 도입하지만, 2018년 영업배상책임공제 등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추가 상품개발 도입을 신속히 검토하여 업무일원화를 통한 조합원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